

누가복음 12-13
Tape #C2534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in our Bibles to Luke's gospel, chapter 12.

We are dealing with the final month in the ministry of Jesus. He has returned to Jerusalem. He will soon be leaving Jerusalem to go down to the area of the Jordan River beyond Jericho. Where He will sort of absent Himself from the authorities, until such a time as He comes back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and makes His triumphant entry on the Sunday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So just where, here in Luke's account, does Jesus leave Jerusalem, is not declared by Luke. John tells us about this little time that He spent down at the Jordan River. It was while He was there at the Jordan River that He got the message from Mary and Martha concerning the death of Lazareth, which perpetrated His return. And then, of course, soon after that His triumphant entry, His trial, and crucifixion. Probably chapter 12, no doubt, still happened while He was in Jerusalem. And around chapter 13, as He is there in a synagogue, it could be that He has moved from the precinct of Jerusalem at that point.

누가복음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께서 곧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가시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벗어날수 있는곳이며 유월절 명절을 위하여 돌아와 주일날 입성을 할때까지 그곳에 계실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니다. 요한은 주께서 요단강 근처에 가서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설명합니다. 요단강 근처에 가신지 얼마 안되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돌아 오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멧세지를 받았습니니다. 물론 그후에 곧 그의 입성이 있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이 따릅니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12장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때 있었던 일이었던 같습니니다. 13장에는 그가 회당에 있었습니니다. 그 때엔 아마 주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셨던것 같습니니다.

So in the mean time, when they were gathered together an innumerable multitude of people (12:1),

They beginning to really press upon Him, and thronged Him. So bad were the crowds,

that they were stumping on one another, he began to say unto his disciples first of all,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12:1).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12:1).

군중들은 주님을 실제로 밀면서 에어 찢습니니다. 무리가 너무나 많습니니다.

서로 났힐만큼 되었던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2:1).

Now leaven was that yeast, actually, that they used in the baking of their bread. And it caused the bread dough to rise by the process of fermentation. And so actually, it was a rotting of the leaven or of the yeast that causes it as it rots to release these little bubbles of air, which puff the bread up. And all you need is just a little bit of leaven within the lump of dough, and that little leaven will exercise its influence upon the whole lump of dough. The whole lump will be putrefied or fermented by just a little piece of leaven. So they had what they call their starters, like the sourdough. Where they put just a little bit of it into the new dough, and they always save a part of it to put in the batch that they would make tomorrow. And just a little leaven was all they needed to leaven the whole lump.

누룩은 실제로 빵을 구울때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그것이 발효과정을 거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누룩이나 효소의 썩는것이며 그것이 썩을때에 이 작은 공기의 거품을 내어보내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반죽에 아주 작은 누룩이면 충분하며 이 작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누룩이 떡반죽 전체를 썩게하거나 발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 물질 (Starter) 이라고도 합니다. 조금의 누룩을 새로운 떡반죽에 넣고 일부분은 내일 사용 하기 위해 보관합니다. 온 덩어리를 부풀리기 위하여 작은 누룩이면 족합니다.

Paul warns about the leaven in the church. A little leaven leaventh the whole lump, therefore purge out the leaven. Jesus is here warning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He said is hypocrisy. It's amazing how hypocrisy can spread, just a little bit of it. It has that effect of rotting and spreading.

For there is nothing covered [Jesus said], that shall not be revealed; neither hid, that shall not be known. Therefore, whatsoever ye have spoken in darkness shall be heard in the light; and that which you have spoken in the ear in closets shall be proclaimed upon on the housetops (12:2-3).

사도 바울은 교회안에 있는 누룩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떡반죽에 퍼지게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 즉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계 하십니다. 외식이 지극히 작은것이지만 퍼져가는걸 보면 놀랍습니다. 그것은 부패하게 하며 계속 번져갑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12:2-3).*

Now I don't know that I appreciate that. There are some things that I have said in confidence that I really don't want published abroad. But the Lord is really just telling us basically to keep yourself open and straight, don't be hypocritical.

내가 그걸 좋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말한것은 정말 밖에 발표하기를 원치 않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모든것을 바르게 하며 외식하는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Somewhere a story was spread that we had received some tape recordings of some private evangelist in Israel. We had taken a tour over there. Of course, in Israel a lot of things are bugged. Your hotel rooms are, you never know. But somehow these evangelists got word that we received from our friends over there, who are involved in the Israeli government, that we had received from them some tapes that were made of some of the stories they were telling, and things that they were saying about the people that were on their tours. And they were quite upset, because according to the story that came to them, we were going to use these tapes to expose them. Very interesting, I don't have any tapes. I never had any tapes. I am not interested in any tapes of private conversations.

어디에선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개인전도자의 테이프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 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관광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여러가지가 비위를 거스립니다. 호텔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전도자들은 그곳에 사는 정부의 공무원인 우리의 친구들로 부터 그들이 여행하면서 한이야기를 담은 테이프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우리가 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그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는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일은, 내손엔 아무런 테이프도 없습니다. 테이프를 본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대화를 담은 테이프에 흥미도 없습니다.

But this thing of being one thing to a person's face, "Oh, you precious little darlings." And then when you get alone say, "Did you see them? Can you believe that?" That 's what Jesus said, this business of hypocrisy. How tragic that this is one of those evils that seems to permeate the religious systems of men.

그러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 보배로운 작은 아기들." 그리고 혼자 있을때 "저들 봤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외식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종교제도에 침투하는 죄악중의 하나 입니다.

Years and years and years ago, before many of you were born, when radio was still in it's infant stages, there was an announcer on a children's program that use to read the comic

strips to the children. And oh, he was so gushing and all in his talking to the children, and so personable on his show. Well, it so happened that he thought that they had caught off his mic and they didn't. And he began to express his true feelings concerning kids. And that was the end of his career.

오래 전에 라디오의 초창기에 아이들에게 만화를 읽어주는 어리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아, 그사람이 어리애들에게 말할때 너무나 감정을 잘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의 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끝는줄 알았는데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 관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Beware of hypocrisy.

"That which is spoken in secret," Jesus said, "will be shouted from the housetops."

I say unto you my friends, Don't be afraid of those who can kill your body, and after that they have no more that they can do. I will forewarn you whom you shall fear: Fear him, which after he had killed hath power to cast into hell; yea, I say unto you, Fear him.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farthings (12:4-6),

Now two farthings equals about a penny, so sparrows aren't worth much.

an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12:6)

외식에 주의하라.

“비밀리에 말한것이 지붕위에서 외쳐서 알게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앓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 시는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12:4-6).

Though they are so insignificant, yet your Father God is concerne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God is very interested in you.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farthings, none are forgotten before God.

But even [He said]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Fear not therefore: for 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12:7).

And so He is comforting now the disciples with the fact that the Father knows our needs. The Father is concerned with us. The Father keeps interesting statistics about you. He is concerned with even insignificant things of your life.

그것들이 지극히 보잘것 없는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들 중 하나도 잊어 버린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다섯이 두 페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2:7).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말 의미없는것에 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Also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confess me before men, him shall the Son of man also confess before the angels of God: But he that denies me before men shall be denied before the angels of God. And whosoever shall speak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it shall be forgiven him: but unto him that blasphemeth against the Holy Spirit it shall not be forgiven (12:8-10).

Now these are things that we have studied in other gospels of the sayings of Jesus. Luke is just sort of grouping together. And Jesus probably is just grouping together a series of thoughts and principles that He has previously amplified upon. And so on another occasion Jesus amplified this subject of the sin against the Holy Spirit and the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And in other places He amplified on the confessing Him and denying Him.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2:8-10).

이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을 우리가 공부했던것입니다. 누가는 같은것들을 함께 모아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가 먼저 강조했던 사상이나 원칙들의 시리즈를 함께 그룹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성령을 훼방하는죄에 관한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주님을 고백하는것과 주님을 부인하는것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 하셨습니다.

Now when they bring you into the synagogues, and unto the magistrates, and the authorities, take no thought how or what thing you are going to answer, or what

you're going to say: for the Holy Spirit shall teach you in the same hour what you ought to say (12:11-12).

And so this divine inspiration of the Spirit in the moment of peril.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2:11-12).

이것은 위기에 있을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것입니다.

One of the company said unto him, Master, speak to my brother, that he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And Jesus said 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 or a divider over you? (12:13-14)

But he used the occasion to warn now against covetousness.

He said unto them, Take heed, and beware of covetousness: for a man's life consisteth not in the abundance of things he possesses (12:15).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2:13-14).

주께서 때로는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2:15).

This is an opposite of the popular conception of the world around you. As far as the world around you is concerned, a man's life does consist in the abundance of things that he possesses, and thus, men are trying to amass more things to themselves. But Jesus is declaring that you've got to be careful of covetousness. Because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things he possesses. What then does a man's life consist of? It consists of relationships, which are more important than possessions. For what should it profit a man, if he should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more important and more valuable than all of the possessions you could possibly amass to yourself.

이것은 우리주변에있는 세상의 인기와는 정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주변에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데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선언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 집니까? 그것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신을 위하여 쌓을수있는 전 소유물 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It is tragic that many people, in order to amass to themselves vast possessions, many men who have been caught up with this covetousness, because of their greed and covetousness, their drive to amass a fortune, they have alienated themselves from any meaningful relationships. How many families have been broken because the husband was so driven by that desire to get ahead, to amass for himself vast possessions, that he neglected his relationships at home. How many men have driven themselves until they had a heart attack. It's a very common ailment among executives, men who drive themselves until they destroy their health. And covetousness is something that just can't be satisfied. It will continue to drive you harder, harder, harder, until it destroys those things that are important. Those things of which life does consist, life's consistent relationships, primarily your relationship with God, which then affects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covetousness can destroy these things. So beware of covetousness.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거대한 소유를 쌓기위하여 욕심에 사로 잡혀 있는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부를 쌓으려는 그들의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모든 가치있는 그들의 관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욕심에 끌려 많은 소유를 축적하려고 가족관계를 무시함으로써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해칠때까지 몰고 가는것이 중역들에게 흔히있는 고질병 입니다. 탐심은 만족 시킬수 없는것 입니다. 그것은 모든 중요한것들이 파괴 될때까지 당신을 계속해서 점점 더 열심히하라고 끌고 갑니다. 삶은 여러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것은 당신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탐심은 이러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조심 하십시오.

And then to illustrate it, He gave them a parable.

He said,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brought forth plentifully: And he thought within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because I have no room to bestow my fruits? And he said, I know what I'll do: I will pull down my barns, and build greater; and there I will bestow all my fruits and goods.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ve got it made] you've got a lot of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unto him, Thou fool, this night thy soul shall be required of thee (12:16-20):

그런후 주께서 그것을 설명하기위해 예화를 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2:16-20).

Interesting, the man's opinion of himself, and God's opinion of him. His opinion of himself was: I've got it made. God's opinion of him was: thou fool. Now notice this: this man was still in the dream state, not the fulfilled state. He had not yet built the bigger barns; these were only plans. "As soon as I have the bigger barns, as soon as I fill them, then I will be able to say: alright you've got it made, kick back, eat, drink, and be merry. Take it easy; you've got it made." He never did arrive at that point.

재미있는것은 그에 대한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그의 의견은: 내가 모든걸 성취했다. 하나님의 그에대한 견해: 어리석은자. 이것을 주목 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직 혼자 꿈꾸고 있는 상태이지 성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그의 더 큰 곡간을 짓지 않았습니 다. 이것들은 그의 계획일 뿐입니다. "큰 곡간을 짓는대로 곡간을 채우면 내가 이렇게 말할수 있으리라: 다 성취했어. 다리 뺀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제 성취했으니 편안히 지내자." 그는 그렇게 성취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I would dare say that when, if he had not died that night, and he had continued to live, and he went ahead and tore down his barns and build the bigger barns and filled them, that he still would not have been satisfied. And at that point could not have said, "Well, you've got it made, kick back." Very few people ever arrive at that point in life. Where they can say, "Well, I have enough." There is a proverb about those things that are never full. And one of these is that desire, never full, never satisfied.

내가 감히 말할수 있는것은 그가 그날밤에 죽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서 그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가득 채웠을 지라도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을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아, 이제 내가 성취했으니, 편히 쉬어라" 고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 내가 충분히 가졌어" 라고 말할 그러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족 시키지못할 몇가지에 대한 잠언이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우리의 욕심 이며 그것은 절대로 만족 시킬수 없습니다.

The question then, of course, is propounded by the Lord: "To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so who is going to be able to enjoy all of the goods that you have amassed?"

whose shall these things be, which you have provided? So is he [the parable now is of that man] who lays up treasures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12:20-21).

This is whom the parable is addressed to. Those people who have been so careful to lay up treasures for themselves, but are not rich towards Go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has suffered as a result or consequence.

물론, 그런 후에 주님이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아 놓은것을 누가 즐기겠느냐?”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2:20-21).

이 비유는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고통스러운것입니다.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say unto you, [don't be covetous]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ou are going to eat; for your body, what you are going to put on (12:22).

That is, take no anxious thought, or better translated, don't be worried about what you are going to eat, or what you're going to wear. For life doesn't consist in things.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12:22).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달을 부리지 말아라고 번역하는것이 염려하지 말라 보다 더 나은 번역이 될것입니다. 생명이 물질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Life is more than meat, the body is more the clothes.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 houses or barns; and God feeds them: how much more are you better than the fowls? And which of you [by worrying] taking anxious thought can add to his stature one cubit? (12:23-25)

Now if you happen to have a pituitary gland that hasn't functioned at full capacity, and you happen to be short, and you're so concerned because you can't reach the top shelf in the cupboard, which of you by facing this kind of a problem, sitting down and just being so worried, and so concerned, about, “I am so short, oh, wish I weren't so short.” And which of you by giving a lot of anxious thought of this can add eighteen inches to your height? That's what Jesus is saying. You can't even add one inch to your height, much less eighteen.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12:23-25)

만일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뇌화수체를 가져서 키가 작아 찬장의 제일 높은 칸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당신들 중 누가 이런 문제를 당면하여 앉아서 염려만 하며 “나는 키가 너무 작아, 키가 그렇게 짧지 않다면” 하고 걱정합니다. 당신들 중 누가 이에 대하여 염려하므로 당신의

키를 18" 더 늘일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의 키에 18" 는 커녕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길이조차도 더할수 없습니다.

Now if you're not able to do the simple things, then why are you worried about the rest? Consider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don't toil, nor do they spin (12:26-27);

And, of course, the idea is the woman at the spindle, making the yarn, and making the cloth and all. Using the spindle to make the threads to make to cloth, and the whole thing.

But look at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don't toil, they don't work, they fingers aren't toiling, and working at the spindle.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 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12:26-27).

물론, 뜨게질 하는실을 만드는 축에서 일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는것입니다. 축을 사용하여 옷과 모든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며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합니다.

yet, Solomon in all of his glory [with all of his wealth, with all of his grandeur] wasn't dressed as beautifully as one of these. Now if God so dresses the grass, which today in the field, and tomorrow is burned;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e of little faith? (12:27-28)

And so really in this whole area, Jesus is talking about life, and He is talking about the Father's concern and care for His children. Sparrows are almost worthless little animals in the sight of man. You can buy five of them for a penny from the little boys in the streets. Yet, there is not a sparrow that falls to the ground, but your Father doesn't take note of it. Your Father takes account of these little animals. Now if your Father takes account of these little animals, how much more does He take account of you? He knows the number of hairs on your head. And so you don't have to worry.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but don't sit down and dream up your little speeches what you are going to say.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to say. The Father is going to take care of you in every situation. And beware of this thing of covetousnes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material things.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12:27-28).

예수께서는 실제로 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관심을 말씀 하십니다. 참새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동물입니다. 동전 일전으로 참새 다섯마리를 거리의 소년에게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작은 동물도 돌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동물들도 돌아 보시거든 하물며 당신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머리의 수도 세신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염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닥쳐 올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까하고 앉아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할말을 주실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보아 주실것입니다. 탐심을 주의 하십시오. 물질에 대하여 염려 하지 마십시오.

Now here is the answer to the whole thing, in verse 29, or going on from there.

And seek not what you are going to eat, or what you are going to drink, or be of a worried mind. For all of these things do the nations of the world seek after: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have need of these things (12:29-30).

I like that: your Father knows all about you. And He knows you have to eat. He knows that you got to wear clothes. He knows all about the issues in your life. Your Father knows all about these things.

29절이나 뒤에 따르는 절에 있는 모든것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12:29-30).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 관하여 모든것을 아십니다. 먹는것과 입을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아시며 당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것에 대하여 다 아십니다.

So rather [than seeking these things as the primary issues of life]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all of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Don't fear, little flock; for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12:31-3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se things. You just seek the kingdom of God, because it's the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오직(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이것들을 찾기보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12:31-32).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So sell what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provide yourselves bags which wax not old, a treasure in the heavens that fails not, where no thief can approach, neither can moth corrupt. But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And let your loins be girded about, and your lights burning (12:33-35);

This business of loins girded about is a phrase that was particular to their culture, for the men wore long robes. And to work in a long robe is cumbersome. To run is cumbersome. And so when a man was ready to go to work, he would pull his robe up and tie a sash around it. Making it knee length, or above the knee length, rather than down to his ankles. And this facilitated his ability to work or to run.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12:33-35).

허리띠를 띠는것은 긴 겉옷을 입는 그들의 문화에 특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 겉 옷을 입고 일하는것은 아주 귀찮은 것입니다. 달리는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갈 준비가 다 되었을때 그의 겉옷을 걷어 올린후에 띠를 둘러서 맵니다. 그것은 발목보다는 높이 무릎이나 그보다 좀더 높게 맵니다. 이렇게 하면 일할수도 있고 땀수도 있수도 있습니다.

So Jesus is saying, "Prepare yourself for service, for work, gird up your loins. And let your lights be burning."

And ye yourselves like unto men that wait for their lord (12:36),

Now here Jesus is giving to us a concept of life, which should be the concept of life of every child of God. A person's concept of life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his attitude and his actions. People express their concepts of life with various figures of speech. Life is a journey. Life is a race. Life is a war. Life is a party. A man expresses his concept of life. Jesus said your concept of life should be, "Life is like a servant waiting for his lord." That 's what your life should be. Like a servant who is waiting for his lord, for his lord may appear unannounced at any time. Therefore, you should be living your life with the anticipation of our Lord coming at any moment. And if you do live your life with this expectation, it will markedly alter your actions and your attitudes. Especially towards the worldly things, of which Jesus is just been speaking.

그래서 예수께서 "봉사나 일할 준비를하라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라" 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12:36).

이제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개념이 되어야 할 삶의 개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개념을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또한 인생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파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의 개념을 표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개념이 반드시 “인생은 자기의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 라는 말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타날 그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올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What is my attitude towards material things? What if the Lord comes tonight, then what value are all of these material things going to be to me? If my Master comes for me tonight, all of these things that I've been worried about, all of these things that I've been giving so much time to, what value will they be to me at that point?

물질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물질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염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이 모든것들이 그 시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Now the way to maintain my proper attitude towards the material world is to be as a servant who is waiting for his Lord. If I am living with that concept of life, then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 improper attitude towards material things. I have the proper attitude, because I am not going to be caught up in the material things. Because I realize that they are not important. My relationship with God is all important. And I am like a servant who is waiting for his Lord. And when my Lord appears, I want to be ready for Him, and able to open the door immediately.

물질 세계를 향한 나의 적합한 태도는 그의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되는것 입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인생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물질에 대한 부적합한 태도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에 사로 잡혀있지 않으면 나는 바른 태도를 가진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한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타나실때 나는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당장 문을 열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so that when the lord knocks, they may open to him immediately (12:36).

Jesus said that's the way you should be. Not a lot of unfinished business when the Lord comes. “Oh wait, oh I wasn't ready, Lord. Oh, you caught me by surprise. Would you mind waiting for a few hours, while I get things cleaned up here?”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12:36).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때 끝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오 주님,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가 모든것 깨끗이 정리할동안 몇 시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요?”

Now our Lord is coming at any moment. Every other concept of life has its goal in view. And you can pretty well ascertain when it will be achieved. Life is a race. If you are running a race, you know where the goal is. You know how many laps you have finish before you come to that finish line. Life is an education, you know how many more units you need to graduate. But I don't know when the Lord is going to come. I don't know what is the climax. The climax can take place at any moment. It can take place before I get home tonight. It can take place before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when He comes there will be two sleeping in the bed. It could be that I be asleep in bed when the Lord comes knocking, and I want to be ready to just go immediately.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다른 개념도 견해에 따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될때 더 확실해질수 있을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당신이 경주를 할때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인생은 교육입니다. 몇학점을 더 해야 졸업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른지 나는 모릅니다. 무엇이 클라이막스인지 모릅니다. 클라이막스가 어느 순간에나 일어날수 있습니다. 오늘밤 내가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기전에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두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중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때 침대에서 자고있는 사람이 내 자신일수도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당장 뛰어 나갈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Good thing to just clean the slate before you go to sleep at night. Take care of it. “Lord, I commit myself to you.” He may come before morning. And that's the way the Lord wants you to live, because it creates a greater urgency to everything I do. Because this may be my last opportunity to do it. My last opportunity to share the love of Jesus Christ. My last opportunity to serve the Lord. My last opportunity to lay up treasures in heaven. And so your concept of life is as a servant waiting for his Lord. It has a lot to do with my life, as far as purity is concerned.

밤에 자러 가기전에 해야할일을 다하는것은 좋은것입니다. 할일을 다 처리 하십시오. “주님, 모든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아침이 되기전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모든일에 대단한 긴급성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 일을 행할수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길 마지막 기회 일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나의 마지막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 대한 개념은 주님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은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정결하게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For we are now the sons of God, but it doesn't yet appear what we are going to be: but we know, when He appears, [at any moment, at any time] we are going to be like Him; for we will see Him as He is” (I John 3:2).

And he who lives by this concept, he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even as He is pure. It is a purifying influence living this concept of life. I want to make sure that I am pure. I want to make sure that I am right. I want to make sure that I am ready to meet my Lord at any moment. So that when He comes, you may open immediately.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이 개념대로 사는 사람, 즉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삶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깨끗케 하는 영향을 줍니다. 내 자신이 깨끗한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옳음을 확인 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오실때 당장 문을 열수 있습니다.

And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 when the lord comes he will find watching: verily I say unto you, that he shall gird himself, and make them to sit down to meat, and will come forth and serve them (12:37).

Now that's the thing that just absolutely is hard for me to really conceive. The Lord's reward for His faithful servants who are girded, waiting for their Lord. Ready to open, watching for Him to come. What's He going to do? He is going to gird Himself and serve them. The glorious marriage feast of the lamb. The Lord is going to be there and say, "I am going to be here to serve you." Oh, my.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12:37).

바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 힘든것입니다. 주님은 띠를 띠고 그들의 주인에게 수종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문을 열 준비가 되어있고 그들의 주인이 올때를 지켜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 자신이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양의 혼인잔치 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여기 있노라” 고 말할것입니다. 와와!

Now if he shall come in the second watch, or come in the third watch (12:38),

And these are watches during the night, you don't know what watch He is going to come, the second, or the third, but the thing is, be ready. So that whatever time the Lord may come, you will be ready.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12:38),

이경이나 삼경은 밤중입니다. 주인이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and if he finds them girded [waiting for the Lord], blessed are those servants. And this know, that if the goodman of the house had known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have watched, and he would have not allowed his house to be broken in through. So therefore be ready also: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when you think not (12:38-40).

Now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the Lord is coming in the next hour? Honestly, I don't think any of us believe He is coming in the next hour; we probably wouldn't be sitting here. There is a little bit of unfinished business I'd like to take care of, you know. A few calls I want to make. Watch out. The very fact that you don't think He is coming in the next hour makes it a good candidate.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in an hour when you think not.

주인이 ...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12:38-40).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주님이 한 시간 이내에 오시리라고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주님이 한 시간 안에 오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끝내야 할일이 끝장이 나지 않았어. 전화도 몇군데 해야하고. 조심 하십시오. 다음 한 시간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생각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십니다.

Then Peter said unto him, Lord, is this parable for us, or is it for everybody? And the Lord said, Who is that faithful and wise steward, whom his lord will make ruler over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portion of meat in due season? (12:41-42)

Who is that faithful servant that the Lord is going to make a ruler in His household in the kingdom of God?

Blessed is that servant, whom the lord when he comes shall find him so doing (12:43).

So doing what? Watching for the Lord. As a servant, girded, waiting for his Lord.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12:41-42)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드실 신실한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12:43).

무엇을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지 지키는것입니다. 종으로서 허리를 동이고 그의 주인을 기다리는것입니다.

Of a truth I say unto you, that he will make him the ruler over all that he has (12:44).

Jesus said, "And in that day I will say unto them on the right hand, 'Come, ye blessed of the Father, inherit the kingdom that was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Matthew 25:34).

As John is describing Jesus in the first chapter of Revelation 1, he said, "Unto Him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who has made us on to our God a kingdom of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Him, upon the earth." He said, "I will make him the ruler over all that I have."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12:44).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 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고 하셨습니다 (마 25:34).

요한계시록 오장에서 요한은 예수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 하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함께 다스리리라." 그가 말씀 하시기를 "내가 가진 모든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But here is a warning:

If that servant says in his heart, [Oh,] My lord is going to delay his coming (12:45);

"The Lord isn't going to come until after the revelation of the antichrist. He is going to delay His coming until the tribulation period, or until after the tribulation period. Or He is

going to delay His coming until Russia moves, or whatever.” Hey, the Lord can come at any moment, and He wants you to be ready for Him to come at any moment.

Now there is always a danger of saying the Lord is delaying His coming. That is a dangerous and pernicious doctrine and thought. Because the effect of it is so often slothfulness. The Lord is delaying His coming; let's have a big party.

그러나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12:5);

“주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 까지 오시지 않을거야. 주님이 오시는것을 대 환난 때까지 아니면 대 환난 이후에 오실거야. 아니면 러시아가 이동할때까지 지체 하실거야...” 이것좀 보세요, 주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것은 어느 순간에도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체된다고 말하는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위험할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교리와 생각입니다. 그것은 빈번히 케으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것이 지체되니 큰 잔치나 합시다 라고 할것입니다.

and he begins to beat the menservants and the maidens, and he begins to drink, and be drunken; The lord of that servant will come in a day when he is not looking for him, at an hour when he is not ready, and he will cut him in two, and will appoint him his portion with the unbelievers. And that servant, which knew the lord's will, and prepared not himself, neither did according to his will, will be beaten with many stripes. But he that knew not, and did commit things worthy of stripes, shall be beaten with few stripes. [And here is the key:] For unto whom much is given, of him shall be much required; and to whom men have committed much, of them they will ask the more (12:45-48).

God holds you responsible for your knowledge. Knowledge creates responsibility before God. And having the knowledge that you have, brings you into a greater responsibility before God. God holds you responsible.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12:45-48).

He is talking about the fire of hell that was really burning against Him in the hearts of the people. It's already kindled this fire, the fire of judgement. And He has a baptism, that baptism of death.

이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있을줄 알지만 지금은 이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12:49-50).*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타고있는 그를 반대하는 지옥의 불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불은 벌써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의 침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hen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said, "Lord, I'd like a favor. Let my one son sit on one side, and the other on the other side of You when You are sitting there in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Jesus said, "Are they able to be baptized of the same baptism?" "Oh, yes, Lord," the boys said, "you bet you. We can." Jesus said, "Well, that may be, but to grant that request is the Father's prerogative." Talking about His death, His baptism. "And I am straitened until it's accomplish, I am set towards it."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여,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영광중에 앉으실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구했을때 예수께서 "내가 받는 침례를 그들이 받을수 있느냐?" 라고 하셨을때 그 아들들은 "예, 주님, 할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침례는 받으려니와 너희의 요구를 허락하는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느니라." 주께서 그의 침례를 말씀 하실때 그는 그의 죽음을 말씀 하신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때까지 나는 그것에 전념하노라. 내게는 목표가 정해졌노라" 고 주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Do you suppose that I've come to give peace on earth? I tell you, No; a division
(12:51):

The Gospel of Jesus Christ divides men. Those who are saved, and those who are lost. Those who believe, and those who do not believe. Those who have a hope in eternal life, those who have no hope of eternal life. The Gospel of Christ is a divider of men. Families are divided by it.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12:5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 갈라집니다.

And so from now on there will be five in one house divided, three against two, two against three. The father divided against his son, the son against his father; the mother against the daughter, the daughter against the mother; the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12:52-53).

This division that the Gospel created, and especially so in the Jewish home, where so often to receive Jesus Christ wrought a complete ostracizing from the rest of the family. What a division their faith in Jesus Christ did create in an orthodox Jewish home. Where many times they would have a funeral for that child and considered them dead, because they dare to believe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chosen one of God. The division.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12:52-53).*

복음으로 인한 분쟁은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심합니다. 번번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척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대단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감히 예수를 선택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Now He is talking to His disciples up to this point, now He turns to the crowd.

And he said to the people, When you see a cloud rise out of the west, immediately you say, Oh there is going to be a shower; and so it is. And when you see the south wind blow, you say, Oh, it's going to be a hot day today; and it comes to pass (12:54-55).

Over there, of course, from the west would be coming from the Mediterranean Sea. So like here, when you got the clouds coming in from the ocean, you say, "Oh, oh, we are going to have a shower." You get the Santa Ana winds blowing, you say, "Oh, oh, it's going to be a hot one today." So over there, much the same.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말씀 하신 후에 무리들을 향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12:54-55).*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생겨날때 말하기를, "오, 소낙비가 오겠군" 하고 말합니다. 산타아나 바람이 불면, "오, 오늘 많이 더워 지겠군"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Jesus said,

You hypocrites, you can discern the face of the sky and of the earth; but how is it that you can't discern this time? (12:56)

In other words, you are able to tell by the signs in the heavens what kind of a day it's going to be, rainy, or hot. Why is it that you haven't been able to read the signs that God has placed for the time of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He rebuked them, because they had not known the time of His coming. They should have.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12:56).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징조를보고 날씨가 비가 올지 아니면 더울지를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의 오실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읽을수 없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의 오실때를 알지 못하기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것이기때문입니다.

Now I feel that the same is true for us today. The Lord has given ample evidence by prophesy, telling in advance the things that would exist at the time of the return of Jesus Christ. Having given us the signs of these things, He said, "Now when you see these things begin to come to pass,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 for your redemption draweth nigh" (Luke 21:28).

나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느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말씀하신 예언으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징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눅 21:28).

And yet, there are people who are able to make predictions of the stock market, or able to make weather predictions, or they can predict and forecast many things, but they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we are in the last days. And in the end of time. And the same kind of spiritual blindness over the return of Christ. And even many ministers will sort of mock the idea of the immanency of the return of Jesus Christ. How sad that people are just as ignorant of His second coming as they were His first.

아직도 증권시장이나 일기예보나 여러가지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을 깨닫지 못한것 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He said,

Yes, and why even of yourselves judge ye not what is right? (12:57)

Why can't you yourself make a good judgment?

Now He said,

When you go with your adversary to the magistrate (12:58),

You've got problems; you are being involved in a suit.

as you are in the way, give diligence that you may delivered from him (12:58);

Seek an out of court settlement is what the Lord is saying.

lest he hale you to the judge, and the judge deliver you to the officer, who cast you into prison. I tell you, you won't get out, until you paid the very last mite [which is one eighth of a cent] (12:58-59).

주님께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12:57).

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12:58);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12:58);

주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법정에 가기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호리 (일전이) 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58-59).

Chapter 13

Now there were present at that season (13:1)

And, of course, now Luke may have gone on in a period of time. We don't know how much time elapsed between verse 59 of chapter 12, and 13:1. It could be that this synagogue is somewhere down near Jericho.

There were present at that season some that told him of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ngled with their sacrifices (13: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13:1)

물론 누가는 어느 기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본것 같습니다. 12장 59절과 13장 1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회당은 여리고 근처 어느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13:1).

Now the Galileans were often hotheaded. They were always chaffing under the Roman rule, and most of the revolts against the Roman government came in the area of Galilee. So they are relating to Jesus how that there were some Galileans who were probably involved in a ruckus against Rome, and Herod sent his soldiers, and when the soldiers came, they were in the act of offering sacrifices to God. And the soldiers killed them right there, and their blood was mingled with the blood of the sacrifices. And, of course, to the Jew that was a very heinous thing.

갈릴리인들은 빈번히 성질이 급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그들은 항상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로마 정부에 대한 반항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소란을 피우는일에 참여했던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예수와 관련 시키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의 군사들을 보냈으며 그 군사들이 왔을때 저들은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저들을 거기서 죽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And so they had just informed Jesus about this.

And Jesus answering said unto them, Do you suppose that these Galileans were sinners greater than all of the rest of the Galileans (13:2),

Do you suppose that they are the worst sinners in Galilee?

because they suffered such things? (13:2)

Do you think that this is an act of God's judgment because they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rest?

그래서 그들은 이일에 관하여 예수께 알렸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13:2),

당신들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그들이 다른 모든사람들 보다 악한 죄인이었기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Now it is so often that we make that mistake of when something happens to a person that is a very sad or tragic event, so many times people look on it as judgement. "Oh, ho, they are getting what they deserve, aren't they. I wonder what they did to deserve that terrible thing." And Jesus is putting down this concept. "Hey, do you think because this happened to them, they were worst sinners than the rest of the people in Galilee?" He said,

I tell you, No way: and, unless you repent, you are also going to perish. Now the eighteen people, upon whom the tower of Siloam fell, and killed them, do you think that that happened because they were sinners who were living there in Jerusalem? (13:3-4)

어떤 사람에게 대단히 슬픈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오호,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것을 받는구먼, 그렇지 않은가? 그런 흉악한일을 당하도록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구먼." 예수께서는 이러한 관념을 막으려고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갈릴리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13:3-4).

Now the pool of Siloam is down in an area that you have to go down many steps to get down to the pool of Siloam. And there are buildings around the pool of Siloam now, walls and all, and they were probably building a tower. And the people used to go to the pool of Siloam. It was a crowded place because that was the main water supply for Jerusalem. And the women would do their washing there in the pool. And it's no doubt always crowded with people. And this tower that they were building there at the pool of Siloam fell, and eighteen people were crushed to death.

실로암 못은 거기에 내려가려면 수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엔 실로암 못 주변에 여러 건물들과 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탑을 짓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곤 했습니다. 그 연못이 예루살렘의 근원이 되는 수원지 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은 연못에서 빨래를 했을것

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니다. 실로암 에 사람들이 세웠던 탑이 무너져 18명이 죽었습니다.

And so Jesus calls attentions to this tragedy. He said, "Do you think that that happened because they were the worst sinners in Jerusalem?"

No, I tell you: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And then He spoke a parable to them; A certain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came and sought fruit from it, and he found none. And he said to the dresser of his vineyard, Three years I've been waiting for this tree to produce fruit, and I have found none: cut it down; [why should it take energy or nutrients out of the soil?] Why cumbereth it the ground? But the gardener answered and said, Lord, let it go for one more year, and I'll dig about it, and fertilize it. And if it bears fruit, good: and if not, after that we'll cut it down (13:5-9).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극에 주의를 기우리게 하셨습니다.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3:5-9).

The fig tree is used in a symbolic sense of the nation Israel. The Lord desiring to receive fruit, and not receiving it. Coming for fruit, and not finding it. And the one more opportunity that is given to them to bare fruit. If they don't, then it will be cut down. Tragically they did not, and the nation was cut off.

And as he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on the sabbath. There was a woman which had a spirit of infirmity for eighteen years, and was bowed together, and could not lift herself up (13:10-11).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실을 원하시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실을 보려고 오셨으나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결실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결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으며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3:10-11).

Now I have seen people over there in the orient, in the Middle East, who are bent over from their waist, the upper torso goes down, and they usually hold their head out, but they are bent double from their stomach. The upper torso down, and their head is sort of by their feet, looking up, just bent over. And it's a very grotesque sight to see. Here was a woman who had this grotesque appearance, being bent double. She was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when Jesus was there. According to the account, her condition was caused as the result of demonic activity, a spirit of infirmity.

나는 동방 즉 중동에서 허리의 윗부분에서 부터 꾸부러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통상 그들은 머리는 위로 쳐들었지만 그들의 배꼽에서 부터 이중으로 꾸부러졌습니다. 몸통의 윗부분은 아래로 향하고 그들의 머리는 그들의 다리에 의하여 위를 쳐다보도록 꾸부러졌습니다. 그것은 쳐다보기에 아주 괴상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괴상 망칙한 모습의 여인이 꾸부러진채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계실때 그 여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 육체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And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to him, and he said unto her, Woman, you are loosed from your infirmity. And he laid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was made straight, and glorified God (13:12-13).

Imagine what that must have done in the synagogue that day. With this woman, who after eighteen years in this bent over condition, was able to stand up straight, and started praising God, and glorifying God.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 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3:12-13).

그날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18년간 이러한 상태로 꾸부러져 있던 이 여인이 똑 바로 설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Now the ruler of the synagogue responded with indignation, because Jesus had healed her on the sabbath day (13:14),

And not to Jesus, he didn't have that much courage, but to the people.

he said, There are six days in which men ought to work: in them therefore come and be healed, but not on the sabbath day (13:14).

So sort of rebuking the people, saying, "Look, you've got six days to be healed, don't come on the Sabbath day."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13:14),

그가 예수께 화를 낼 용기가 없어 사람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13:14).

말하자면 사람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여보게, 병을 고칠수 있는 엿새가 있으니 안식일엔 하지말아야 될것 아닌가.”

And the Lord answered him, and said, Hypocrite, do you not on the sabbath day loose your ox or your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him away to watering trough? (13:15)

One thing about the Jews was they were always very humane. A high value upon life, human and animal. This humane aspect to the date is one of the great qualities of the Jewish people. Some of the greatest hospitals, open to everybody, their value that they place upon life. And so because of that, their law would allow them to untie the donkeys, or their ox, and lead it to water, even though it was the Sabbath day, and that was work. Because of the humanness of it or the kindness of it to animals, they were allowed to do that in the law. And so Jesus said, “Which of you, if you have an ox or a donkey, don't you loose it, don't you untie it on the Sabbath day to give it water?”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3:15).

유대인들에 관한 한가지는 그들은 항상 대단히 자비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까지 이 자비심이 있는 이 측면은 유대인들의 아주 훌륭한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큰 병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들은 생명에 가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나 소를 끌러서 물을 먹이는것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이고 또 동물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중에 누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And ought not this woman, being a daughter of Abraham, who Satan has bound, for lo, these eighteen years, be loosed on the sabbath day? (13:16)

All I have done is untie a woman that Satan had bound up for eighteen years. So what if it is the Sabbath day? You loose your donkey to give him water.

And when he said these things, all of his adversaries were ashamed [rightfully so]: and all of the people rejoiced in the glorious things that were done by him. And he said, Unto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13:17-18)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3:16)*

단지 내가 행한것은 18년간 사단에게 매였던 여인을 풀어준것 뿐이니라. 그날이 안식일
이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나귀를 풀어 물을 마시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13:17-18).*

Now here He has just had this run-in with the religious leaders. The religious systems of man, who had taken the revelation of God, the law the ordinances, the statutes, and they had made such a system out of it that it was hard for a simple man to come to God with this complex system that men had made. And so really, as Jesus said, "You won't enter the kingdom yourself, and you actually hinder those who would like to come into the kingdom."

여기에 주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맡은 사람들의 종교제도는너무나 복잡해서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뿐만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기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It's tragic when religion becomes a hindrance to man's coming to God rather than an assistance to man's coming to God. But that's the capacity of man. He is able to take a simple thing and make it extremely complex by setting up his own hierarchy in it, and his systems of authority and power.

종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것
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간단한것을 취하여 권위와 권력을
사용할수있는 자신의 계급 제도를 도입하여 그것을 지극히 복잡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And Jesus said just come up against the authority who would hold back the work of God on these people because of some tradition that they had developed, a concept of man that had become popular among them. And thus, they would hold back the people from God's work in their lives.

백성들에게 그들이 개발한 전통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로 끄는 관념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지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그들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것을 방해합니다.

And so Jesus said, "What shall I liken the kingdom of God to?"

what can I give to resemble it? It'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cast into his garden; and it grew, and waxed into a great tree (13:18-19);

Wait a minute, something is wrong. A mustard seed is a herb. It belonged in the herb gardens. A mustard seed never became a great tree. There is something abnormal about this. There is an abnormal growth here.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13:18-19);

잠깐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겨자는 풀입니다. 그것은 채소 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가 결코 큰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 정상적인것이 있고 그것은 비 정상적으로 자란것입니다.

and it grew, and waxed into a great tree; and the fowls of the air lodged in the branches of it (13:19).

In college I had a professor who told us not to try to preach from the parables until we had been pastoring for at least thirty years. He said, “It will take you that long to understand the parables.”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13:19).

내가 대학교 다닐때 한 교수는 우리가 적어도 30년간 목회할때까지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말 했습니다. 그는 “비유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What do college professors know? I started preaching from the parables immediately. I wish I could retract many of these sermons that I have preached from the parables. It's amazing how they have changed in the last thirty years.

대학교 교수가 뭘안다고? 나는 당장 비유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유에서 설교한것을 돌이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난 35년 동안에 얼마나 바꿨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This parable, and the following parable of the leaven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until it leavens the whole lump, have had two widely divergent interpretations. There are some, mainly liberal theologians, who use these parables to show how the kingdom of God will start very small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so very small. Yet, it grew into a great tree and the

fowls of the air came and lodged in its branches. And so they teach that, though the kingdom of God will start with a very small beginning, the twelve disciples, yet it will grow, and grow, and expand, until it encumbers the whole world. And all kinds of nations and people will be able to lodge in its branches. And they say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a person believes, they all find shelter and lodging in this great tree. It's able to accommodate a wide variety of beliefs and systems. And again, the same idea with a little bit of leaven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until the whole of it is leavened.

이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가루 서말속에 넣어 부풀게한 누룩의 비유에는 두가지의 다양한 해설이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서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것을 보여주기위해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단지 열두제자를 사용해서서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또자라서 온세상을 다 점령할때까지 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갖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 가지에 머무를수 있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든지 실제로 상관없이 큰 나무에 피난처를 찾아 머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다양한 종교와 제도를 포용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작은 누룩 하나가 가루 서말이 부풀때까지 그속에 숨어있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Is again a symbol of how just the Gospel will begin in just a little part of the world, but will gradually expand until the whole world has been brought to Christ.

다시 그것은 어떻게 복음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온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될때까지 진보적으로 확장될것의 상징 이라는것입니다.

These theologians back in 1935 and '36 were proclaiming every day, and in every way, the world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at was before Hitler began his movement into Austria. After Hitler's rise, somehow you didn't hear that phrase anymore. Because we saw that horrible holocaust of World War II. But unfortunately, things haven't improved much since World War II. The world is perhaps in the worst shape it has ever been in. And far from the church being a healthy influence, bringing the kingdom of God. And, of course, that's what was going to happen according to this philosopher. The church is going to bring the kingdom of God to the world. And one of these days the church will take over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and we'll have a theocratic government, and will be able to rule, and we'll bring the glorious kingdom age. And we'll bring peace, and the men will beat their swords in the plowshares. And the church is going to bring to pass, the glorious kingdom age.

1935-1936년도에 이러한 신학자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게 되어 간다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로 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일어난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없으나 그런말은 더 이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차대전의 혹독한 대학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차대전후에

조금도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건전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철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멀지않아 교회가 세상의 모든 정부를 차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부를 세울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다스릴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나라의 시대가 올것입니다. 그런후에 평화가 올것이며 그들의 무기는 쟁기를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나라의 시대를 갖게될것입니다.

Now there are still groups that do believe this. The Mormon church, for instance, has set itself up to take over the government as soon as it collapses. And they believe that the collapse must come, and they will then step in in the shambles. And they will establish a righteous government. And we will all become Mormons. And we will have peace upon the earth.

아직까지도 이것을 믿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몰몬교회는 정부가 무너지는 순간 떠맡으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며 수라장이 될때 그들이 발을 들여놓고 의롭고 공평한 정부를 세우겠다는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몰몬교도가 되며 이 지상에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But unfortunately, the Jehovah witnesses are planning much the same. So it looks like when the system falls into shambles that we are going to have a first class war as to who will be setting up the theocratic government. Whether it be the Mormons or the Jehovah witnesses. I am of the opinion that it will not be the accomplishment of men or of the church, but will, and can only be, accomplished by the return of Jesus Christ Himself. And I don't think that it is going to happen prior to His return. In fact, I think everyday, and in every way, the world is getting worse, and worse, and worse. And that's pretty much in keeping with what Jesus said would happen. "For evil days," He said, "shall wax worse, and worse."

불행히도 여호와의 증인도 거의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무너지고 수라장이 될때 누가 신정정치를 설립하려는지를 결정하기위해 일급 전쟁이 벌어질것입니다. 그것은 몰몬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냐를 결정하기 위한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사람이나 교회에 의해 신정이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엔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날마다 모든면에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일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악이 점점 성행하는날이 오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Thus, the second interpretation to these parables. Guess which one I believe? Number one, the mustard seed growing into a tree is abnormal growth. It isn't natural growth; it's

abnormal growth. Now there is what is known as expositional constancy, and that is, you use a figure of speech in a parabolic form, and that figure of speech remains the same in all parables. So in all of your parables the fowls or the birds are never used in a good sense, but in an evil sense. When the seed fell by the wayside, the birds of the air came and devoured it, that it could not take root. And what did Jesus say the birds of the air were? Satan comes in and snatches it away. So what Jesus is saying, is that, though the church may experience an abnormal growth, it will become the lodging place of many evil systems. And as I look at church history, that is what I see is indeed the fact.

이 비유에 두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것이 어느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로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것은 비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게 아니라 비 정상적으로 자라는것입니다. 성경해석학적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형태에서 상징적으로 쓰여진것은 모든 비유에서 똑 같은 상징으로 남아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비유에서 까마귀나 새는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될수없고 악한 뜻으로만 사용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못한 씨앗을 삼켜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공중의 새들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은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경험을 할지라도 많은 악한제도가 머무는곳이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때 그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When Constantine, for political reasons, gave the edict of toleration and supposedly embraced Christianity and joined a church to the state, that was the darkest hour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For in joining the church to the state, he introduced into the church a multitude of pagan practices, of which the church has never been able to fully free itself.

To the church of Sardis, the protestant reformation, Jesus said, "I have somewhat against you, I have not found your works complete before God."

정치적인 이유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용납하고 받아드리도록하여 교회가 국가에 연결되었을때 그것은 교회역사상 최악의 암흑기 였습니다. 교회를 국가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는 이교도들이 지키는 많은 것들을 교회에 소개시켰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해방될수없게 되었습니다.

사데교회, 즉 종교개혁에 대하여 예수께서 “너를 책망할것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The Protestant reformation came as a protest against the evil practices that had arisen within the Catholic church, especially the selling of indulgences. For the pope was desirous to build a great cathedral in Rome, St. Peters. And the money wasn't coming in fast enough to build this glorious monument that he was desiring to put up as a symbol for Christianity. And so someone in the council came up with a bright idea. "Everybody likes to sin, why don't we sell them forgiveness for sins." And they can buy an indulgence before they ever indulged.

종교개혁은 카톨릭교회안에서 일어난 악행, 특별히 면죄부를 파는일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황으로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가 짓고 싶었던 영광스러운 건물을 짓는데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이 명철한 생각을 한것입니다. “모든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의 용서를 파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폭 빠지기전에 면죄부를 살수 있습니다.”

So as they're indulging, the thing is covered, because they've already bought their forgiveness. “So you want a little escapade on the side. You want to go out and get drunk? Fine, go down and buy your drunk indulgence. You want to have an affair? Go down and get an adultery indulgence.” And they started selling the indulgences to the people. And this so incensed Martin Luther that he took his ninety-five thesis, his objections to the practices that had developed within the church, and he tacked them on the door, and he protested. And thus, the name Protestant. Beginning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그들이 죄악에 빠질지라도 그들이 면죄부를 샀기때문에 죄를 용서 받은것입니다. “탈선행위를 하고 나가서 술마시기 싶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내려가서 술을 사서 마십시오. 정사를 원하십니까? 내려가서 간음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를 격노케하여 그가 교회안에서 개발한 악을 반대하는 95조항을 채택하여 그것을 문에 붙여놓고 항의했습니다. 이래서 개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A dark black history, birds in the branches, fowls. Leaven, as we mentioned earlier, when Jesus sai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creates a fermenting process, rottenness. The three measures of meal, going back into the Old Testament when the angel of the Lord visited Abraham, he ordered Sarah to prepare something for him, and she took three measures of meal, and made some bread for them. And at that point they became symbolic of fellowship with God. So that under the law, when they had made the burned offering sacrifice, which was the sacrifice of consecration of a person's life to God, they followed it with the meal offering, which was made of three measures of meal, three-tenths of an ephah of fine flour, the three measures of meal. And they would offer this as a sacrifice, which symbolized the offering of my works to God, bringing me into fellowship with Him.

그것이 교회의 암흑기의 역사이며 가지에 깃든 새들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 말씀 하셨을때 누룩은 발효과정 즉 부패과정을 말한것입니다. 가루 세말을 생각 해봅시다. 구약에 돌아가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때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사라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라는 가루 서말을 취하여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교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율법아래서 사람들이 개인의 삶의 성결을 위한 제물, 즉 번제를 드릴때 번제에 이어 소제를 드리며 그것은

가루 서말 즉 고운 가루의 한 에바의 십분의 일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희생으로 드리며 그것은 내가 일한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것입니다.

Now in the offering of the sacrifices, they were never to use any leaven. So that the leaven inserted into the three measures of meal is an evil thing. But yet, that evil will permeate until it has an effect upon the whole lump. And unfortunately, this has been again the experience of the church. And as we look at the condition of the church today, we see that it is far from what Jesus said it should be. There is leaven and it has affected the whole church, and the witness of the church is sadly hindered by the leaven within it.

희생의 제물을 드릴때 누룩을 사용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루 서말속에 누룩을 집어 넣는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침투하여 반죽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다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볼때 예수께서 원하셨던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누룩이 있으며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안에 있는 누룩으로 인해 슬프게도 교회의 증거는 방해를 받게됩니다.

Now Jesus went through the cities and villages, teaching, and journeying towards Jerusalem (13:22).

So He is now on His way back toward Jerusalem.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13:22).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Then one said to him, Lord, are there only a few that are going to be saved? And he said unto them, Strive [the word in Greek is agoniso, strive] to enter in at the strait gate: for many, I say unto you, will seek to enter in, and shall not be able to. When once the master of the house is risen up, and has shut the door, and you begin to stand without, and knock at the door, saying, Lord, Lord, open unto us; he will answer and say unto, I don't not know you from whence you are: Then shall ye begin to say, Oh, but we have eaten and drunk in thy presence [we've taken communion], you have taught in our streets. But he shall say, I tell you, I don't know from whence you are; depart from me, all ye workers of iniquity. And there sha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n ye shall see Abraham, and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and you yourselves thrust out. And they shall come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and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and shall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And, behold, there are last which shall be first, and there are first which shall be last. The same

day there came certain of the Pharisees, saying unto him, You better get out of here; because Herod is going to kill you. And Jesus said to them, You go tell that vixen, Behold, I'm casting out devils, and I'm cur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third day I will be perfected (13:23-32).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굶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13:23-32).

This is the only person of which Jesus really spoke in such a derogatory manner. Herod had gone over the limit. Jesus had absolutely nothing to say to him, except the message he sent, "You go tell that fox I'm going to do my work," that vixen, female fox.

실로 이 사람이 예수께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태도로 말씀하셨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보내신 메시지외에는 그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일을 하려한다고 하여라" 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암 여우를 말합니다.

When Jesus appeared before Pilate, Pilate sent Him to Herod, and Herod was glad because he had heard about Jesus and he was curious. He wanted to see Jesus work some miracle. And when Jesus came to Herod, Herod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and Jesus didn't say a word. He had no answers. He didn't say a word to Herod. It is sad when a man's condition is so bad that the Lord has no word for him at all. Jesus refused to speak to him, had no word for him, that is how far he had gone down. What a sad condition to be in. "You tell him that the third day I shall be perfected." "Herod is going to kill." He says, "I'm going to be there."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를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간하여 들었고 궁금했었기 때문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몇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에게 오셨을 때 헤롯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 말씀도 아니 하셨습니다. 대답할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헤롯에게 한 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상태에 있을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는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가 너무 악하게 되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절 했고 그에게 하실 말씀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태입니까! “내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그에게 전하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제자가 말했을때 주께서 “내가 그곳에 가겠노라” 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Nevertheless I must walk today, and tomorrow, and the day following (13:33):

Now remember he was journeying towards Jerusalem. He said,

it isn't proper that a prophet should perish out of Jerusalem (13:33).

And then He cried,

O Jerusalem, Jerusalem, which killest the prophets, and you stoned them that were sent unto thee;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thy children together, as a hen doth gather her brood under her wings, and you would not! Behold, your house is left unto you desolate: and verily I say unto you, You will not see me, until the time come when you shall say, Blessed is he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3:34-35).

□□□ □□□ □□□ □□□ □□ □ □□ □□ □□□ (13:33).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것을 기억 하십시오.

□□□□ □□□□ □□□□ □□ □□ □□□□ (13:33).

그런 다음 그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34-35).

Now they did not see Him publicly until His triumphant entry, and what were they crying at His triumphant entry?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You see, He had just been warned about, “Herod is about to kill you. You better be careful. Herod is about to kill you.” “So, you go tell him I’ve got my work to do. I’ll be there. I’ve got journey today and tomorrow, third day I’ll arrive. It’s not proper that a prophet should perish outside of Jerusalem.” But then His lament, “O Jerusalem, Jerusalem, thou that killest the prophets and stoned them that have been sent to you; how often I would have gathered you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brood under her wings, but you would not!”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자로서 입성하실 때까지 그를 공중들 속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실때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이 있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심 하세요. 헤롯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방금 그는 경고를 받았습니니다. “그에게 가서 전하라. 내게 할일이 있어 거기에 가야하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 갈길을 가야하리니 삼일에 그곳에 도착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의 슬펐습니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일이 몇 번이나?”

Now when He made His triumphant entry, as we will get in the nineteenth chapter here of Luke’s gospel, again, as He is looking at Jerusalem, He again laments and cries over Jerusalem, “If you had only known,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things which belonged to your peace! But they are hid from your eyes” (Luke 19:42). They’re crying,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다시 보겠지만 예수께서 입성하셨을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퍼 우십니다 “□□ □□□ □□□ □□ □□ □□□□ □□ □□□□□□ □□ □ □□ □□□□□□” (19:42). 사람들이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하더라.

So I feel that Jesus is perhaps referring to the fact that He will not be seen in Jerusalem until the day of His triumphant entry. It is possible that He is referring to His second coming. But it is true that at the triumphant entry they were crying,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ut it is also true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so bad in Jerusalem prior to the return of Jesus Christ, when the antichrist comes to the rebuilt temple and declares that he is god and demands to be worshipped as god and begins to persecute the Jews with a greater persecution than they have ever known before, then they will be crying, “O,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They’ll be praying for the Messiah, and Jesus will come.

주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날까지 그가 보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성하실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친것도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시기전에 모든사정이 나쁘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재건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요구할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심한 핍박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가 복되도다” 라고 외칠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할것이며 예수께서 오실것입니다.”

So which of two, or perhaps it refers to both, but Jesus is making reference here, “And they will not see Him until they pr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Next week, chapters 14 and 15.

둘중에 어느것, 또는 두가를 다 가리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 있는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들이 기도할때까지 주님을 보지못할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되도다’ 라고.”

다음에 14장과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Now may the Lord bless you and be with you and cause you to hide His Word away in your heart. Meditate upon it, go over and review it, and then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Adopt that concept of life that Jesus spoke of that you might be as a servant just waiting for his Lord.

May God be with you and bless you, give you a good week, help you as you begin this new year, that you might walk with Him in an ever deepening fellowship. In Jesus' name.

주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하는자가 되지말고 행하는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인을 섬기는 종의 개념을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셔서 좋은 한주간이 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며 주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